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강준식(김정연) 김경자 김기수 하세연 김기택(배숙자) 김미희 김병울(이영숙) 김순녀 김순석(임영덕) 김경자 김홍선(박영숙) 김진희 김현구(서재희) 김현욱 박부용(최귀남) 박순웅(이승애) 박승현 박해진(장동민) 배경철(김순화) 백성현(안지영) 서진화(최봉순) 석형기(이희순) 송미선 여종민 유호근(손영화) 윤 숙 윤영준(박진숙) 이영희 이옥남 이철숙 이종문 이태일(송백현) 이항교 정기성(심순옥) 채명업 천세력(염영분) 최기훈(정계숙) 최성현(윤경자) 최정구(김미영) 최정희(박원조) 황영욱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최지은) 김경자 김기택(배숙자) 김순녀 김순옥(이한웅) 김경자 김현욱 박복래 배경철(김순화) 백남실(윤병윤) 송미선(양정현) 여운희(윤대선) 윤 숙 윤송환(민옥희) 이승애(박순웅) 이옥남 이철숙 이종문 이태일(송백현) 이한웅(김순옥) 임영덕(김순석) 정기성(심순옥) 채명업 최봉순(서진화) 하세연 바울남전도회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최지은) 이필래 김경자 김근봉 김병울(이영숙) 김경자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박부용(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박희영(이한울) 손영화(유호근) 염영분(천세력) 윤 숙 윤경자(최성현) 윤정호(유옥자) 이근자 이미자 이옥남 이철숙 이종문 장성자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채명업 하세연 황영욱 무 명

☞ **일천번재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석 김민혁 김준구 김혜란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박희영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욱 이강우 이강우 이미자 이설아 이소은 이승애 이옥남 전병구 전영선 전지선 정승현 정옥순 정해지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무 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18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출애굽기 12장 14절 ~ 28절		
월요일	출애굽기 12장 29절 ~ 36절	목요일	출애굽기 13장 11절 ~ 22절
화요일	출애굽기 12장 37절 ~ 51절	금요일	출애굽기 14장 1절 ~ 14절
수요일	출애굽기 13장 1절 ~ 10절	토요일	출애굽기 14장 15절 ~ 31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송슬기 김선희		
	찬 양 대	지 휘 자	할 켈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은 · 에 멘 : 최원지 엔	젤 : 이남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클라리넷			박진숙 이남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탁	김안나 정예슬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진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백 시 코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줄거운교회, 아름다운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1. 04. 25.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다니엘 4장 19-27절

설교: 이진우 목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으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징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도는 징계에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1.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늘까지 닿고 땅끝까지 미칠 권세를 주셨으나 이제는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임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왕이 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불기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징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왕이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기에 교훈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느부갓네살왕에게 꿈을 통해 미리 알리신 것은 그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왕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없었다면 꿈으로 그 사실을 알려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돌이키기 위하여 사랑의 때를 드시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결국 그 죄 값으로 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길로 행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렇기에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면 오히려 그 징계가 복이 됩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함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동기가 되는 징계는 결국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간들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죄에서 돌아켜 회개하고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징계로 더욱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가 임할 때 과연

2. 징계를 당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고 돌이켜 높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이 왕의 죄 때문에 징계를 내리실 것이므로 징계가 임하기 전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충언합니다. 교만함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징벌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징계를 결정하셨다면 취소할 수는 없지만 징계를 당하는 자에게 따라 기간이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속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징계를 당하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픔이 가득하지만 후에 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키가 크고 더욱 성숙하기 위한 성장통과 같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 더욱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7 - 18

2021. 05. 02.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도우소서” [역대하 14장 1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